함즐0410_함즐0718 11. 4. 8. 오후 6:43 페이지 1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담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교회 등록한지 이제 2년이 갓넘은 성도입니다. 결혼하면서 교회를 옮겨 교회에 친구도 없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전부였답니다. 직장생활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겨자씨모임도 안하고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신나게 집에와서 쉰다고 신혼부부모임에도 안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게 되니 육아가 정신이 없어 겨자씨모임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되었어요. 회사를 휴직하고 집에서 아이만 보다보니 산후우울증도 생기고, 매사가 힘들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힘든데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어렵고 아무도 나의 기분을 몰라주는 거 같고, 기도도 안나오고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거 같은 기분이 들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예배시간에 주보를 찬찬히 보다보니 우리 교회에 상담실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전화상담이라 얼굴을 볼 필요도 없어 노출되지도 않을텐데.. 전화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교회 상담실이라 너무 거룩하신 말씀만 할 거 같고, 어찌보면 하찮은 고민이라고 느끼시고 제대로 말 안해주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망설이기도 수십번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잘 때 용기를 내어 전화를 했습니다. 416-5183 ....뚜루루~ 뚜루루~ "주님의 교회 상담실입니다 " 라고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 저.. 이런 일로 전화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기 키우면서 너무 우울해서 전화해봤어요" 라고 말하면서 제 자신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전화하셔도 되죠" 라고 반겨주시는 목소리가 마치 힘들었던 저를 껴안아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맘이 놓이면서 제 속에 있는 두서없는 생각들(직장복직문제, 육아문제 등)을 내려놓게 되었던 거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찮은 고민들까지도 쏟아내었더니 그렇게 장장 45분이 넘는 통화를 하고나서 감사기도가 나왔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상담실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기도할 힘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답니다. 상담실이란 이름은 무언가 큰 문제가 있어서 해결 받아야 할 때 전화해야한다는 생각이 컸었는데, 우리 교회 상담실은 큰 문제도 있겠지만 시댁이나 남편과 마찰이 있을 때, 육아문제 등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고민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저처럼 일상적인 고민 속에서 혼자 마음아파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편하게 상담실에 전화하셔서 신앙이나 인생에 대해서 상담 받으시고 다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 품속에서 전진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백기경 성도 〉

교회소식 이모저모

- 크리스천다운 남다른 성공 세미나

30plus주최로 지난 4월3일 주일 오후에 크리스천의 신앙적 직장생활을 돕는 세미나(크리스천다운 남다른 성공" -강사 : 원용일 목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직장사역연구소장으로 섬기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사목으로, 신우회 인도자로 기독 직장인들의 신앙훈련과 상담을 해오고 계신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크리스천들이 성공과 행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성경적 성공을 위한 7가지 미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장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루어졌는데 특히,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회식문화, 주일업무, 무속문화(고사) 등에서 회피하기 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기도와 협력을 통한 대안 만들기가 필요함이 강조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이론적인 강의 뿐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참석한 청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윤석 전도사 _ ysko58@gmail.com 〉

- 제5기 싱글매칭학교

커플이 매칭되어 현재 교제중 입니다.

이번기수에는 80여개 교회에서 청년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여자청년의 경우 115명지원하여 95명이 탈락되고 20명이 엄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명의 남녀청년들이 3월 한달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모든 참가자는 20명과 20번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5기 싱글매칭의 모든 데이트를 마치고나서 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정하는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칭 결과는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12

〈싱글매칭학교 담당 공광승목사 _ ks417@hanmail.net〉

- 제1남선교회 3월모임

어렸을 때 소풍의 설렘을 갖고 3월 12일 토요일에 1남선교회는 국내성지순례의 일환으로 버스를 타고 수원성 답사를 떠났다. 구한말 세워진 초기 미션학교인 매향학교(삼일여학교 – 초대 여류 "나혜석" 화가 졸업)와 한강 이남에는 제일 건물이 크다는 수원 제일장로교회도 있었으며 수원소갈비가 유명했던 이유가 당시 왕실방축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며, 수원성이 방어성곽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울까 선조들의 미적 감각에 감탄하고 돌아왔다. 우리 처음에 그러지 않았던가? "삶은 선물"이라고! 선물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는 것이다. 받고 감사하면 된다. 운명도 '되도록 되어진 것' 이 아니라 '놓여진 것' 이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제 삶을 받아 들여 즐기며 느끼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다. 문화부의 전문 큐레이터이신 장순길 집사님의 자세한 설명과 사진학교수인 임근원 총무 집사님의 사진도 더욱 빛난 하루였다.

- 주님의교회 찬양대 연합수련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중 하나가 찬양이다. 우리 교회에는 6개의 찬양대와 1개의 챔버가 있는데, 각각 맡은 예배와 역할이 다른 찬양대들이 모두 모여 오는 4월 30일(토) 본당에서 연합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수련회는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박호길장로, 지도목사:배현성 목사) 주관으로 개최되는데, 각 찬양대원의 영성을 높이고 음악적 소양을 진작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찬양과 영성에 관한 강사로 박원호 담임목사님을 모셨으며, 발성 특강 연사로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장이신 최홍식 교수와 동 병원 성악발성치료전문가인 남도현 교수를 초빙하였다. 발성 특강에서는 효과적인 발성법, 호흡훈련법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발성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성대 보호 및 치료까지 다루게 되어 성악 전공자와 목회지도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강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당일 오후 2시~6시30분까지 본당에서 열릴 예정인 "찬양 영성 및 발성 특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찬양대 연합수련회에는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동 수련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각 찬양대의 장기자랑과 유쾌한 홍보전의 감상으로 오랜만의 큰 웃음과 함께 연합의 아름다움을 보는 흐뭇한 마음도 보너스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문화예술분과위 기획지원팀 홍운식 안수집사, ☏ 010-8314-0597

전화신앙 상담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함즐함울 〈편집부〉
편집장: 홍기협 / 편집 자문위원: 정양재
편집기자: 노대홍, 정선화, 김희영, 이은주, 정경혜, 신형섭, 강은주, 장광희, 최미현
사진기자: 서정하, 김은성 / 미디어 위원장: 박대길 / 담당 교역자: 최용석

함즐0410_함즐0718 11. 4. 8. 오후 6:43 페이지 2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_롬 12 : 15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오늘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_ 롬 8 : 32

통 권 _ 제 282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1년 4월 10일

2011 평양노회 100주년기념 영적 대각성 부흥회

지난 4월 7,8일 평양노회 장로회 연합회 주최로 2011 평양노회 100주년기념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대예배실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는 박원호 담임목사님과 염천교회 담임목사이시며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총회장이신 박위근 목사님께서 인도 하여 주셨습니다.

- 영성을 회복하자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첫날집회에서 박위근 목사님은 빌립보서 4장 4-7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란 첫째,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며**, 둘째,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고**, 셋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교회의 역할은 민족의 희망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염려의 대상이 된 것을 보며 우리가 먼저 부끄러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을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늘 깨어 민감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자고 하셨습니다.

둘째날 집회에서 박원호 담임목사님은 골로새서 1장 16-20절의 본문을 통하여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영성의 회복은 모든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인데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금 되새겨야 할 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어려움을 겪는 이 때야 말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 해야 할 때 입니다. 만물의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하며, 영성의 회복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 평양노회와 주님의교회의 소명과 사명

평양노회의 뿌리는 1907년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던 해 평양독노회가 구성된 것이 시작입니다. 1907년 독노회때 평남대리회로 출발하여, 1912년 평양장로회신학교 강당에서 제1회 총회때 평양노회로 조직되었고, 총회를 조직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세분의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2012년 10월 제175회 노회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의 100주년임)

평양노회및 소속교회는 북한교회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쉼 없이 듣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북한지역 교회의 회복과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자신을 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을 주도한 선교사들 중 많은 분들이 부흥사 무디의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선교사로 헌신하였으며 그들에 의하여 한국은 복음화는 물론 문화, 사회, 교육, 의료 등의 근대화에 절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평양노회100주년을 맞으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유산으로 남겨진 영적 대 각성이 오늘날 평양노회와 한국 땅의 모든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교회가 23년 전 평양노회소속으로 정신학원터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하여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소명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홍기협 기자 _ keehhong@hanmail.net〉

주간 목회력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4.18 (월)~23 (토)
〈성금요예배〉 4.22 (금) / 오후 1 : 00 / 대예배실
〈고난주간 금식을 통한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지원〉
〈12단계 성지순례 신청 접수〉 4.17 (주일)까지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4.18 (월)~23 (토)
〈정기당회〉 4.10 (주일) 오후 3 : 30 / 대예배실
〈정기제직회〉 4.13 (수) 수요예배 후 / 대예배실

* **2면** _ 실로암안과병원, 장애인 주일 **3면** _ 교육목회원탐방, 청소년사역원 세미나 **4면** _ 교회소식 이모저모 외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함즐0410_함즐0718 11. 4. 8. 오후 6:43 페이지 3

사랑의 헌금으로 영혼의 눈과 육의 눈을 밝혀주는
실로암안과병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 요한복음 9장 5절

실로암안과병원은 우리나라의 앞 못 보는 20만 시각장애인과농.어촌, 섬 지역, 나환자 정착촌, 교도소, 감호소, 변두리지역,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예수님의 치유정신을 가지고 박애심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사랑의 무료안과진료를 통한 실명예방과 눈의 고통을 치료해 주는 동시에 앞 못 보는 이들에게는 개안수술로 새 생명의 밝은 빛을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안과병원은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자리한 실로암안과병원이고, 또 하나는 실로암안과병원 안의 실로암안과병원 아이센터이며, 세 번째 중국 연변에 설립된 실로암안과병원이고, 마지막으로는 46인승 리무진 버스에 완전한 병원을 설치하여서 농.어촌과 섬 지역, 나환자 정착촌, 교도소, 감호소를 1년에 약 40주간을 순회하면서 현지에서 진료하고, 그 자리에서 수술하여 빛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움직이는 실로암안과병원 입니다.

실로암안과병원 아이센터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찾아가서 선교하고, 사랑의 무료안과진료로 실명을 예방하고, 개안수술로 어둠에서 밝은 빛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에서 무료안과진료와 개안수술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별히 저개발국가로 진료하러 갈 때에는 진료 받은 대상에 한하여서 넉넉지 않을지라도 쌀 4kg나 라면 1~2 Box를 보급해 줌으로써 진료와 더불어 복지차원에서 배고픔도 다소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관이나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생필품과 학용품도 기증해 줌으로써 선교복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사람(단안)에게 개안수술로 빛을 찾아주는 데는 3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수술시에 시

력을 잘나오게 하는 인공수정체와 재료비 및 마취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로암안과병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 한에서 진료와 수술, 입원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을 지원해 주신 분들은 결혼기념, 자녀 입학기념, 졸업기념, 생일기념, 환갑기념, 일일 찻집, 자선음악회, 바자회 등을 실시하여서 바쳐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약 3만 6천여 명이 개안수술로 어둠에서 밝은 빛을 찾았으며, 약 50만여 명이 사랑의 무료안과진료를 통해 실명을 예방하고 눈의 고통을 치료 받았습니다.

실로암안과병원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병원이며, 의사 14분과 간호사 30명을 비롯하여 100여 명의 직원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진료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정신에 의해서 치유와 수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안과병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안과병원과 모자관계 및 협력관계를 이룬 수준 높은 교육 병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키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과의 밀접한 영적관계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시고, 고생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성스러운 삶을 살려고 다짐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사 피를 흘리심과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사랑하심, 더불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하심의 모습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도 고난 받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전해 주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어둔 세상을 구원의 밝은 빛으로 바꿔 놓기 위하여 오셨고, 사흘 동안의 캄캄하고 어두운 무덤을 부활의 권능으로 정복하시고, 절망의 죽음을 희망의 빛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한 무덤을 생명의 빛으로 바꾸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늘과 어둠과 절망에 있는 앞 못 보는 형제.자매에게 영혼의 눈, 마음의 눈, 육의 눈을 사랑의 헌금으로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실로안안과 김선태 목사 _ silcameye@hanmail.net〉

장애인 주일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며, 장애인 부서에서는 4월 17일 장애인 주일, 장애인과 함께 하기 위한 체험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보고, 눈을 가려도 보고, 귀마개와 마스크를 써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째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는 장애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살면서 몰라서 하게 되는 사소한 실수가 때로는 상대편에게 큰 상처가 되어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작은 배려에 깊이 감사하는 모습도 경험 했을 것입니다. 얼마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 장애인이 되어 본다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잠깐이라도 매우 불편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 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느꼈으면 합니다. 편견 없는 시각, 사소한 배려, 따뜻한 관심 등등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이것을 장애 체험을 통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은 성도가 살아내야 할 삶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너무 풍성하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사는 체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부와 3부 예배시 체험단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휠체어를 타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흰색 지팡이로 본당으로 들어오고, 귀를 막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하는 이들도 지켜보는 우리 모두도 조금은 소란스럽고 어색하긴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란스러움이 그리고 어색함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첫 발걸음, 곧 시작입니다. 이 소란스럽고 어색함을 넘어 자연스러울 때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우리 모두를 보내실 때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장애인이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복음절이라 불리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장애인을 향해 죄의 결과라 이해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함' 이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 장애인에 대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불편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주신 사명이 있으며, 이들에게 받고 싶어 하시

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유성훈 목사 _ sori502@daum.net〉

함즐0410_함즐0718 11. 4. 8. 오후 6:43 페이지 4

교육목회원 <담쟁이>

♬ "멋진 하늘아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

담쟁이 유치부는 6-7세의 어린이들이 온 세상에 생명주신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 주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 뛰놀며 마음과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담쟁이'는 아직 열매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친구 한 친구에게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가능성으로 품고 무럭 무럭 자라나는 6-7세의 어린이들을 뜻합니다.

담쟁이친구들은좋으신하나님에대해배웁니다.

신나게 찬양하고 재미있게 말씀 듣고 선생님과 만나는 중에 우리 담쟁이 친구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바램들을 들으시며 친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야기 입니다.

우리 담쟁이 친구들은 크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배웁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잘못했을 때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담쟁이 친구들은 성품과 스스로 성취하는 것을 배웁니다.

담쟁이 친구들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 정직할 것과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것과 자신이 정말 되고 싶은 모습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를 배웁니다. 자기의 신발과 옷을 정해진 자리에 정리하며 서툴지만 스스로 가위질하고 풀칠하여 무언가를 만들어 냅니다. 물도 혼자서 마실 수 있고 자기 만의 그림을 그립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말씀을 척척 암송하고 찬양을 연습해서 성가대로 섬기기도 합니다. 6살 친구들은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7살이 되면 기도문을 또박 또박 읽어 대표기도도 합니다.

담쟁이 친구들은 공동체를 배웁니다.

5세까지의 아이들은 공동체를 알지 못합니다. 5세 이전의 아이들은 함께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혼자서 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세가 되면 서서히 옆 친구와 함께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을 배웁니다. '함께'라는 말을 알게 되고 공동체를 알게 되는 이 시기에 담쟁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배웁니다. 반에서 아픈 친구가 있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 낫게 해주세요' 하며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배웁니다. 어떤 친구는 반의 반장이 되어 친구들에게 간식과 공과책을 나누어 주고 어떤 친구는 찬양시간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를 격려하기도 하고 싸우는 친구를 말리고 중재하기도 합니다.

담쟁이친구들이배우는성품은좋으신하나님을신뢰하는것에서시작합니다.

거짓말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정직하고, 착한아이로 보이기 위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누어 주고 정직을 지키도록 배웁니다.

이런 교육들을 위해 헌신적인 담쟁이의 선생님들은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 힘쓰고 있습니다. 예배 전 30분 일찍 모여서, 또 예배가 끝난 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담쟁이의 부모님들은 담쟁이 교육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담쟁이 친구들은 부모님들의 귀한 헌신 때문에 주일 뿐 아니라 주중에도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가정용 교재로 그 주에 배운 말씀을 복습하고 생활 속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를 위해 1년 두 번 부모교육에 참석해 좋은 강의를 듣기도 하십니다. 담쟁이 친구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귀한 헌신을 지지대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열매들을 마음에 품고 무럭 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담쟁이 유치부 공동체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로 이 아이들에게 지지대가 되어 주실 동역자 선생님과 부모님들을 귀한 하나님의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과 중보기도 부탁드리며 그동안 마음으로 관심으로 기도로 함께 담쟁이를 키워 오셨던 성도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이호진 전도사 hpm7897@hanmail.net〉

2011년에도 이어지는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의 ACTION - "코칭"으로 문을 열다

2011 외부청소년사역자세미나 개최

지난 3월 21일 월요일 소예배실에서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주최로 2011 제1차 외부사역자세미나가 "청소년사역과 코칭"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사역자세미나에는 14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전국에서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전주, 포항, 울산 등 지방과 농어촌교회에서 새벽첫차를 타고 와서 참석하는 사역자들, 젖먹이아이를 안고 와서 열심히 참석하는 어머니사역자들, 바쁜 목회와 학업의 일정을 잠시 접어두고 와서 귀기울여 듣고 질문하며 다음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삶과 학업, 그들의 진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사역의 손길들이 자리하는 모습들로 가득찬 하나님나라의 풍경이 펼쳐진 봄날의 하루였다.

청소년사역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혜성 목사님께서 사역자세미나를 위한 영적준비를 찬양과 기도회를 통하여 이루어주시고 크리스천코칭사역센터 대표로 자리하는 전경호 목사님의 강의로 시작된 오전시간은 소통의 부재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소멸되는 현상으로 오늘 청소년목회의 고민과 문제점을 다루면서 '삶의 목적, 균형, 실패를 통한 전진, 분노다스리기, 함께하기'로 청소년목회가 이제는 코칭시대임을 인식하도록 해주었다. 연이어 두 번째강의 "성령이 이끄시는 아주 특별한 대화-코칭"은 비전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관계, 목표, 현재, 방법,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코칭프로세스까지 나아가도록 사역자들을 이끌어주었다. 오후에 계속 이어지는 강의는 "공부스타클래스"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학습코칭에 대한 내용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의 감독자되신 하나님앞에서 코치의 자리로 나아가는 청소년사역자들을 위한 모판을 제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맛있는 점심식사와 청소년사역원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푸짐한 간식들로 힘을 돋우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귀기울이는 자리는 주님의교회가 이 땅 위의 많은 청소년사역자들을 위해 섬김의 향기를 내뿜는 모습이었다.

앞으로도 청소년사역원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다양한 콘텐츠개발의 과제를 안고 교회안에 자리하는 청소년들의 고민에 귀기울이며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메신저가 될 채비를 하고자 한다.

잠시 쉼을 누리는 시간,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말이 울려퍼진다.

"우리반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설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교사직을 감당하면서 회의가 들 때도 많았는데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고 영적인 도전을 받은 느낌이 강해요 이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오늘 배운 대로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부탁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세미나 알려주시면 꼭 참석할거예요"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소년사역원 개원이래 8회를 맞이하고 있는 외부사역자세미나에 1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참석해주신 사역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로도 청소년사역원의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의교회 중점 사역 안에 자리함으로 앞으로 더욱 더 귀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큰 디딤돌이 되는 소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류은정 목사 _ gracekhhong@hanmail.net〉